

[10-05-08] 토요일 새벽말씀-하나님의 눈물

작성일 : 2009. 10. 24. (토) 새벽3:30 -작성자 : 김진미 (부산열매교회)

(2009. 10. 24 성령집회 때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뜨겁게 기도한 후, 철야 기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아픔이 강하게 느껴지고, 6000년 역사의 그 하나님의 고통과 아픈 마음이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위로하며 기도할 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)

* 하나님 말씀 *

내 사랑하는 자야. 내 마음 너에게 보여주련다.
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마음 보여주련다. 내 사랑아~

그래. 내 마음 너무 아팠다.
내 기쁨. 내 기대. 내 사랑이 컸던 만큼 내 사랑의 상처 너무 깊었구나. 내 눈물을 알까?
육천년 흘렸던 내 눈물을 너희가 볼 수 있을까?

눈물의 연속이었다. 내가 신이라 감정이 없을 거라 혹은 마음의 고통, 슬픔에서 초월한 자라 생각할 것이다.
내 마음결을 따라 흐르는 내 눈물을 보았느냐? 이 자는 내 눈물을 보았구나.
내 눈물 소리를 듣고 어이할 바 몰라 나를 위로하며 울고 있구나!

내 눈물. 이 지구덩이를 녹일 만큼 너무나 애절한 눈물이다.
지구촌을 창조하며 기뻐한 것도 잠시! 이렇게 고통과 한탄과 눈물의 역사가 될 지…….
이 같은 역사가 될 것을 어이 짐작할 수 있었겠느냐?

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이 아픔을 위로해줄 자 누구인가?
모두들 나를 외면하거나 홀대하거나 무서워만 하는구나!
내 사랑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만 하는구나!
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였다.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노라.

내 슬픔의 끝이 없도다. 내 그리 사랑하던 자가. 내 마음에 비수를 꽂고 어둠속으로 가버렸구나.
(루시퍼를 두고 하신 말씀)

아름다운 그가 어찌 잔인한 흑암이 되었던고 내가 진정 사랑했던 자였거늘
수 천, 수 만, 수 억. 수없이 많은 인간들에게 고통 주며 내 사랑을 조롱하고 있구나.

고통이어라. 네 사랑이 어찌 그리 변하였느냐?

어찌 그리 아름다웠던 자가 그같이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였던고. 아픔이다. 내 아픔이다.

내 첫사랑. 아담 그리고 하와. 육체덩이. 고기 덩이가 되어버린 내 사랑들.

존재한 모든 시간이 죄의 무게만 더해 갈뿐 모든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어 버렸구나!

왜 이리도 지구 덩이가 죄 덩이가 되어버렸던가?

쓰레기장이 되어버렸구나! 더러운 쓰레기 더미로 덮인 지구 땅이 되어 버렸구나!

그러니. 내 지구덩이를 던져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?

소망도, 희망도, 애인도 없다면……. 이 지구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는가?

던져버릴까? 부숴버릴까? 조각내버릴까?

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렸구나. 내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곳이었거늘…….

너무 슬프도다. 너무 애통하도다. 심판을 감해 달라 기도하고 있느냐?

내 심판을 멈춰 달라 구하고 있느냐? 그것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야지.

이리도 찢기고 상한 내 마음을 알아야지.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어야지. 내 눈물을 닦아주어야지.

고통의 연속이어라~

내 눈물. 내 고통을 안다면 너희 이리 있지 않을 것이다.

육천년의 내 눈물의 의미를 안다면 이리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야.

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 느꼈느냐? 견딜 수가 없지?

내 사랑. 정말 눈물 나는 사랑이다.

모두가 내 눈물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. 정녕 내 사랑을 보고 느끼길 원한다.

정녕 내 사랑. 내 마음 알고 같이 울어줄 자를 찾고 있다.

내 원통한 역사를 알고 같이 울어줄 자를 찾고 있어. 내 마음 위로해줄 자를 정녕 찾고 있다.

정녕 심판을 감해 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보아라.

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 깊은 슬픔을 보아라.

내 마음을 받은 자, 내 심정을 받은 자, 내 사랑을, 내 마음을 정녕 알고 위로해주는 자.

그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

내 마음 움직여보아라.

사랑하는 자들이여. 그것으로는 부족하다. 그 기도로는 부족하다.

그 눈물로는 부족하구나. 내 눈물을 보아라. 내 눈물의 의미를 제발 알거라.

내 찢기고 상한 마음을 알라.

눈물이다. 눈물. 나 여호와와는 눈물이다.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었고도다.
나의 이름이 눈물이 될 줄 어이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?
눈물이다. 눈물! 눈물 나는 사랑이다. 눈물 나는 고통이어라. 눈물 나는 슬픔이어라.

너희를 향해 하염없이 흘리는 내 눈물 보아라.
사무치도록 너희를 사랑하여 흘리는 내 눈물 보아라.
나를 버리고 간 자들을 보며 흘리는 내 고통의 눈물 보아라.
나는 모두를 사랑하였다. 흑암을 주관하는 그 자 까지도 사랑하였다.
모든 것이 내 눈물 되었구나!
이 재림의 끝자락에.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. 겨우 너희 선생 하나였다.

나를 위해 그리도 울어주었구나. 내 아들 예수위해 그리도 울어주었구나.
그 또한 내 눈물이 되었구나. 나처럼 그의 이름도 눈물이 되었구나.

내가 이리도 너희 가까이 왔으니. 정녕 너희도 나를 느끼기를 원한다.
내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.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.
사랑한다. 사랑한다. 너희를 미치도록 사랑한다.

이제는 딴 곳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. 너희만큼은 나를 홀대하지 말고, 내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, 정녕 나를 사랑으로 맞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자 되어라.

사랑한다. 사랑한다. 섭리의 내 신부들아! 오늘은 내 마음을 보여주었노라. 사랑한다.
- 너희의 사랑 나 여호와다.